

독일 거리에서 펼쳐진 봉축축제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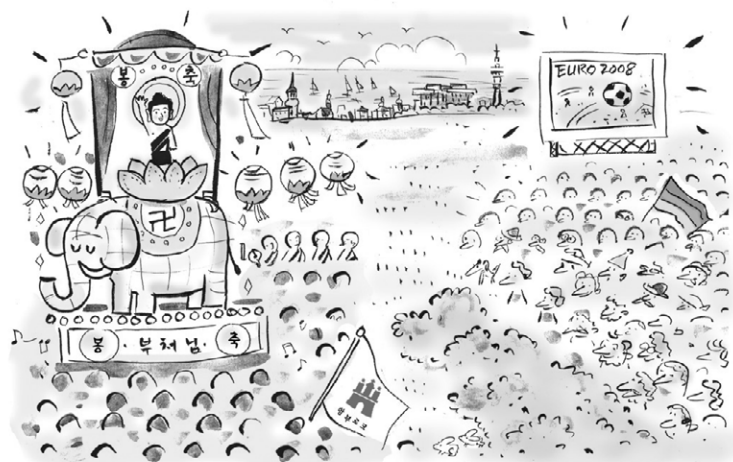
유로 2008 축구 챔피언십이 시작된 6월 8일, 독일 함부르크의 하일리겐가이스트 펠트에서는 뜨거운 햇살 아래 길거리 응원대에 나선 수만 명의 축구팬들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생중계된 개막경기에 열광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흥성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만치 울창한 수풀 건너편에서는 독일의 22개 불교센터와 여러 불교단체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개최됐다. 한 젊은 불자가 가벼운 조크를 던졌다.

“유로 2008 축구의 열기가 뜨겁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오신날 축제가 ‘오프사이드’로 내몰리진 않아요.”

7000여 명의 내외국 남녀노소 불자들은 나무그늘, 늘어터로 둘러싸인 그로센 발란라겐의 주변에 모여 봉축법회를 열었다. 그들은 함부르크 시민들의 심터인 이곳에서 불교계 선지식들의 법문을 경청하고 야외참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막행사에 참석한 함부르크 미테 직할시의 마르쿠스 슈라이버 시장은 치사를 통해 이 공원에 9m 높이의 불탑이 세워지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삽화: 김홍인

“이 불탑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국제항구도시인 함부르크의 특성과 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루터교회의 최초 여성주교인 마리아 엘센은 축사를 통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의 본질에 공감하며 두 종교가 더욱 친밀해지길 바란다고 말해 불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개막식에 이어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야외극장에서 공연된 무용과 불교음악으로 이국적 정취가 넘쳐나는 가운데 너른 풀밭에선 일본불교의 선공도(禪弓道) 시범과 남녀도반들의 참여가 있었다.

봉축법회가 근엄한 종교행사를 겸한 온 가족 나들이의 야유회축제로 기획된 터라, 가족 단위 및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게임과 아기자기한 추억거리가 줄을 이었다. 각 불교단체마다 특징적인 안내 텐트를 세우고 불교관련 소책자와 만화, 홍보물 등을 나눠준 한편, 태극, 티베트, 베트남계 불자들의 코너에는 꼬마 불자들이 이 풀려들어 중앙풍의 별미를 팔고루 맛보느라 신바람이 났다.

함부르크 일대는 독일에서 불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40여개의 각종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작년에 열

을 동안 현지에서 머물며 대규모 법회를 개최한 바 있는 달라이 라마는 현지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 인물로 연속 선정됐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각국의 경우처럼 독일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은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의 연례정기축제다.

이번 봉축행사가 아시아지역보다 좀 늦어진 건 시 당국과 불교단체들 간에 행사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시청에서는 현지의 날씨가 대체로 고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상통계상 가장 쾌청하고 일조량이 많은 6월 8일을 축제일로 제안했다.

그와 더불어, 유로 2008 축구의 거리서포터들도 자연스레 부처님오신날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상은 며칠 전 한 독일도반이 보내온 뉴스레터의 인용이다.

하지만 말짱하게 지도에 그려진 사람표시를 애써 지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땅의 일부 중생들은 도무지 이해 못할 얘기다. 아무튼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은 ‘서울 불현’과 ‘아프간 의료봉사단’ 시라에 이어 이번에도 지구촌 네티즌들의 무한한 감동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사량을 찾으세요, Resolved questions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위커 ①

佛心으로 흑인·여성 장벽 극복



캐치가 잘 되어있는 화폭에 다르마의 고운 색깔을 입혀가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들과 참담하게 대비되는 ‘저교육

수준과 저소득층 유색인’, 특히 흑인들이 불문에 귀의한 사연은 그와 크게 다르다. 그것은 ‘인종적 기득권’이란 스케치는커녕 ‘인간기득권’이란 화폭마저 박탈당한 흑인들의 처절한 절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의 명문대학 집단인 아이비리그에서 점화한 ‘비트 불교’는 1520년 경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접화한 종교개혁이 그려왔던 단순한 종교적 혁신 이상의 ‘총체적 사회개혁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햇빛은 400년을 훌쩍 뛰어넘어 마르틴 루터의 ‘키 주’라는 민중

흑인 불자 귀의 사연 백인과는 상이

인종 차별 철폐·인권 회복 위한 행보

우리의 관심부재 때문이다. 미국에는 불교(佛敎)이란 이름의 전국적인 불교단체가 있는데 흑인불자들이 그 주체로 상당한 정치력도 행사할 만한 규모다. 또한 흑인 비구와 비구니스님들도 계신다.

언젠가 미국의 어느 종교 전문지에서 ‘미국불자란 고등교육수준과 안정된 경제기반을 지닌 백인 중산층 가운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일부’라고 소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도 아니며 표현도 그다지 신중하지 못하다. 195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해안 대도시의 젊은 진보적 지식층 사이에서 태동한 ‘비트 불교’는 이내 뉴욕 등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동부지역으로 전법의 행보를 성를 넓혀갔다.

앞서 언급된 ‘중산층 백인불자’란 대체로 이들을 일컫는 듯하다. 물론 그들이 미국의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체 미국불자를 대표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 까닭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백인불자’들은 대체로 사회전반에 걸쳐 유리하고 여유롭다. 따라서 그들은 불교를 통해 현재의 삶에 ‘영적 부가가치’를 더하고자 한다. 이는 스

계몽의 선구자이자 흑인민권운동가에게 전한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남부지역에서 격렬해진 민권운동의 기폭제인 인종차별철폐 및 기본권보장이었다. 이는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파멸적인 ‘보통인간 선언’이다.

따라서 당시 그들 사이에선 민권(civil right)과 인권(human right)이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들은 허울 좋은 노예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취급을 당연시하고 감수해온 자신들에 대해 먼저 통렬한 반성을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껏 백인들에게 짐승처럼 당하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저열한 종교적 독선과 추악한 제도적 위선에 얼마나 더 치이고 속아줘야 하나? 그들은 마침내 깨닫는다. 오랫동안 백인 우월주의와 기독교적 선민의식에 내몰려 온 그들에게 ‘구원의 종교’니 크리스천의 양심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백인에게 복음이 흑인에게 전주가 아니었던가?

그들은 어느 의문에 대한 답도 더 이상 기독교경전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흑인들은 그 서럽고 지친 영혼을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 <계속>

성휴 스님

중 사찰서 새 생명 81명 탄생

5월 12일 중국 대지진 발생 이후 스산 성의 소도시인 스팡의 무오한스(羅漢寺)에서 81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중국일보는 영문판 보도를 통해 독신 스님들이 정진하는 적막한 도량이 아기들의 힘찬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감격적인 눈물이 어우르는 신생아실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709년에 건립된 이 절은 최초의 지진 징후와 동시에 산부인과병원의 역할을 떠맡게 됐다. 당시 무오한스에서 당직 중이던 수첸 스님은 스팡부녀아동병원에 긴급 연락, 입산부 40여명을 질로 긴급 피신시켰다. 일반이재민들도 신속히 경내로 이동시켜 41명의 스님들의 거처와 대장방 등에 수용하고 철야로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

특히 스님들은 통풍이 양호한 주방에 임시분만실을 만든 한편, 여진으로 흔들리는 절 마당에 6개의 천막을 세워 제왕절개수술용 침대와 탁자 등 간이시설을 설치했다.

출처: 中國日報, BCN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Master! How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river?

스님! 어떻게 하면 강 건너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On his way for a teaching from the great master living a hut across the river, a young man reached the bank of a river. But finding no boat to carry him, he hopelessly pondered for hours on just how to cross it. Just as he was about to give up his journey for the Path, the master showed up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Overjoyed, the young man yelled over to him, "Mas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river?" With a glance at him, the master bursted into laughter, "Ha ha, Where you



are now is the Other Side!" Upon hearing this, the young man got enlightened. "Yes, Nirvana is Here and Now."

한 청년이 강 건너 초막에 사는 큰스님께 배움을 얻고자 강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태워 다 줄 배가 없어 어찌 건너야할지 내내 궁리를 하다 득도의 길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강 건너편에 스님이 나타났다. 청년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강 건너 그쪽으로 갈 수 있나요?" 그를 힐끗 쳐다본 스님이 느닷없이 대답했다. "하하, 이 사람이, 사방 자체가 있는 데가 바로 강 건너 그쪽(彼岸)이네!"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다. "그렇지, 니르바나란 바로 지금 여기인 것을..."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분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기공,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특별보시금 100만원(성직자)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